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원중 제16주일
제36권 34호(다해) 2016년 7월17일

[묵상]



<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

"동생 마리아더러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

마르타의 짜증 섞인 불평의 말이다.
동생 마리아의 모습이 알뜰기도 했을 것이고
자신의 노고도 주께서 알아 주셨으면 했을 것이다.

예수님께 마르타 또한 어찌 아니 고맙고,
이런 존재가 아닐 수 있었겠는가!

종으신 그분을 위해 좋은 몫으로 마르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일
일진대

'나도 좀 알아 주세요'

아쉽기도 하고 동정심이 생기기도 한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힘을 내고
'좋은 몫'을 택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하자.
비록 남이 몰라주는 것 같아도
예수님은 늘 잘 알고 계신다.

-오-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80-2789

월 요 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 요 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 요 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 요 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 요 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 요 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 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 요 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 요 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 요 일	성경공부(구약성경통독)	오전 9:30
토 요 일	학생 복사단 (둘째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넷째 토요일) 울뜨레아(넷째 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후 4:00 오전 10:00 오후 6:00 오후 8:00 저녁 미사 후
주 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꾸리아 오후 1:30 3째주 - ●요셉회 4째주 - ●사목회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2:3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출발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한국 교회의 역사

토요 저녁 미사	(연)이순자 레지나 (생)김원모 웬델리노
주일 낮 미사	(연) 변세연 안드레아 & 변혜경 올리안나, 오종순, 고준희 제임스, 이경용 야고보 & 이윤조 클라라, 서성용 베드로, 이용식베드로, 송학래, 연옥영혼, 길기수, 오희섭, 박종남 마리아, 황인홍 빠토리아 & 이원일 안토니오 (생)엄크리스 벨라도, 홍석인 체칠리아, 황윤재 베드로, 김재환 마르코, 티파니권 요세피나, 김원모 웬델리노, 홍진순 토사가정, 석순영 아네스, 오창근 베드로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창세기(Genesis)18,1-10

화답송 ○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이까?



○ 흠 없이 걸어가고 의로운 일을 하며,
마음속 진실을 말하는 이,
함부로 혀를 놀리지 않는 이라네.○
○친구를 해치지 않으며,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이라네.
그는 악인을 업신여기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존중한다네.○
○이자를 받으려 돈놀이 않으며,
죄 없는 이를 해치는 뇌물 받지 않는다네.
이 모든 것 행하는 그 사람,
영원토록 흔들림 없으리라.○

제 2독서 콜로새서(Colossians) 1,24-28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복 음 루카 (Luke)10,38-42

영성제송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오늘의 성가

	토요 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182	182	191
봉헌	269	269	259
성체	304	304	292
파견	246	246	195

제2부 교회의 진로와 민족의 수난
3. 식민지 시대의 교회(1910~1945년)

3-2. 식민지 아래서의 교회 상황

1927년에는 미국 메리놀 외방 선교회에서 관할하는 평양지목구(prefectus apostolicus)가 설정되었다가 1939년에 교구로 승격되었다. 1937년과 1939년에는 성 골롬반 외방 선교회가 광주와 춘천에 진출하였다. 이와 같이 1920년대와 1930년대에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선교사들이 대거 입국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이르면서 조선인 성직자들이 교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져 갔다. 조선인 성직자는 1910년에 15명으로 집계되었으나, 1936년에 이르러서는 100명을 상회한다. 그리고 1944년 즈음해서는 조선인 성직자가 132명으로 늘어나 당시 조선에 거주하던 외국인 선교사 102명보다 더 많은 숫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제2차 세계 대전으로 미국인 선교사들이 대거 추방된 까닭이기도 하지만, 이후 한국 교회에서 한국인 성직자 숫자는 외국인 선교사 숫자보다 줄곧 우위에 있게 된다.

식민지 시대 조선인 성직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조선인 성직자가 관할하는 교구의 설정이 요청되었다. 그 결과 1928년에 서울교구장 뒤텔 주교는 황해도 일대에 서울교구에 속하는 준자치적인 감목대리구(地域區, vicariatus foraneus)를 설정하고 감목대리구장에 조선인 성직자를 임명하였다. 이에 황해도 교회에서는 '자치기성회'(自治期成會)를 구성하고 교구 독립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조선인 성직자 내부의 불화 등으로 1941년에 감목대리구가 폐지되고 자치 교구 설립은 무산되었다. 한편 대구교구는 1931년에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라도 지역을 대구교구에 속하는 감목대리구로 편성한 바 있다. 이 감목대리구는 1937년에 이르러 전주지목구(prefectus apostolicus)로 발전하였다. 전주지목구 설정은 당시 교황 비오 11세가 추진하던 현지화(localization) 정책과 관련되는 것이다. 전주지목구의 설정으로 조선 교회는 선교사 위주의 교회 운영에서 조선인이 교회를 관리하는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당시 교회는 자랑스런 전통을 이루고 있는 순교자에 대한 공경이 개항기에도 꾸준히 있고 있었으니, 이는 일본 제국주의 압제에 맞서 자신의 존재를 재확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순교자 공경은 1925년의 '조선 순교 복자 79위 시복식' 이후로 더욱 커졌으며, 1931년에는 조선 교회의 뿌리와 전통을 재확인하고 선양하기 위한 조선교구 설정 100주년 경축 대회 행사도 열었다.

<계속>

신앙의 출발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믿음의 성조인 아브라함은 사막에서 낯선 나그네들을 후하게 대접합니다. 사막에서는 물과 양식과 천막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낯선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는 것은 그들 안의 하느님을 섬기고 대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서는 길을 가시다가 친구 라자로의 자매인 마르타와 마리아가 사는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생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온통 정신을 빼앗겨 그분 발치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언니 마르타는 손님들을 잘 대접하려고 음식과 이것저것을 준비하느라 바쁘게 움직입니다. 화가 난 마르타는 예수님께 마리아를 혼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환대를 위해 음식 준비에 바쁜 마르타의 행동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집에 오신 중요한 이유는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에 여성들은 회당에서 토라를 들을 수 없었기에 예수님은 그녀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차별도 없이 그녀들에게도 하느님의 말씀과 사랑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마르타처럼 일하는 데만 치중하여, 정작 중요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듣는 것입니다. 오늘 미사 전례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들으며,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느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청원과 기도가 바쳐지며, 생활에서 그 말씀을 실천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시작은 무엇보다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기도로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분명하게 찾고, 실행하는 데 힘을 얻기 위해서 자주 혼자 외딴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무엇보다 기도의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듣는 자세는 겸손한 모습이며, 자신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의 진리를 상대방에게 말하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가정에서조차 삭막한 사막을 거닐고 있는 것 같은 삶을 삽니다. 우리가 허기와 갈증을 느끼는 것은 물이나 음식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적인 만남과 대화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말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부유한 가정일지라도 인간적인 대화와 만남이 없다면 그 가정은 삭막한 사막이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타의 모습 속에 진정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봅시다.

◆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 서울대교구장

성인말씀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영광과 영혼들을 위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아픔과 고통을 받아들인다면, 언젠가 우리도 하느님을 소유하는 기쁨의 잔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 복자 야고보 알베리오네 -

이번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권순길 세실리아	정광미 프란체스카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김교복 레오	정인욱 아오스딩
제2독서자	이만석 미카엘	김금자 데레사	강혜원 아네스
제물봉헌자			P.V. 1,4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정광미 프란체스카	손석 스테파노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이민상 요한	장영진 안토니오
제2독서자	정진욱 노엘	이순자 비비안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제물봉헌자			토동 2,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시다.
- ◆ 아침미사 성인복사 하실 분을 찾습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본당 수녀님께 연락바랍니다.
- ◆ 성혈 봉사자교육
 - 일시 : 7월 17일(주일) 오후1시~3시
 - 장소 : 소회의실
- ◆ 요셉회 7월모임
 - 일시 : 오늘주일 (17일) 11시 미사후
 - 장소 : 강당
 - 문의 : 정기은 비오 ☎310-780-2789
- ◆ 주일학교 견진반 1,2 등록접수...사무실에
 - 대상 : 9학년이상 미 견진자
 - 시작 : 9월부터 (자세한 일정은 추후공지)
 - 담당교사: 서정우, 제니퍼 현, 써니황
- ◆ 주일학교 찬양의 밤 행사
103SKCCPraise Night 2016
 - 주제 : "Even When It Hurts"
 - 일시 : 7월22일(금) 오후 5시 성당
 - 참석대상 : 남가주 각성당 샌디에고 고등부 신앙대회 참가자 및 관심있는 주일학교 학생들.
 - 어르신 교우들께서 많이 참석하시어 격려해주십시오.
- ◆ 2016-2017년도에 봉사할 교사를 모집합니다.
 - 주일학교 : 초등부 교사 3 명
 - 한국학교 : 초급 또는 중급 교사 1 명
 - 밴드부 교사 1 명
 - 학생 전례부 교사 1 명
 - 문의: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213)700-9399
- ◆ 한국학교 SAT 시험 준비반 여름 특강 중입니다
 - 기간 : 8월 6일까지 매주 토요일, 9:30 am~ 12:30 pm
 - 장소: 강당

- ◆ 제 29회 남가주 성령쇄신대회
 - 일시: 7월 30일(토요일)-31일(일요일)
 - 장소: 이스트 엘에이 칼리지
 - 강사: 손 광배 도미니코 신부(인천교구 성령지도 신부)
김 태광 아우구스티노 신부(팔로티회)
신 상현 야고보 수사(꽃동네)
 - 참가비:\$25(예약시 \$20)
 - 문의: 강혜원 아네스 성령기도회장 ☎(310)780-0369
-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8학년~12학년
 - 일시 : 7월29일(금)~31일(주일)
 - 29일(금): 2:00pm정각 출발
 - 31일(주일): 4:00 pm도착 예정
 - 준비물: 슬리펍백, 세면도구, 재킷, 주일헌금
 - 문의 : 황선준 플로렌시오 ☎(310)658-6654
- ◆ 새회계년도(2016~17)를 맞아 성당홈페이지에 (www.103skcc.org)올려져 있는 담당 봉사자들의 명단을 수정해야 됩니다.
 - 각 분과와 단체를 담당 하시는 봉사자들은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을 확인해 주시고
 - 변화가 있으시면 홈페이지 관리위원회로 7월31(주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관리위원회에서 같이 봉사하실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 담당자 안재만 다니엘 103skcc@gmail.com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7월17일 : * 토동2,3반 (복어국 \$ 3)
- 7월24일 : * 토서1,3반 (짜장밥 \$ 3)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김옥찬 김 욱 김윤진 김찬구 김형순 노혜숙 박석철 박완철 박정자 박종민 배태임 송기철 송호창 신경훈 안민수 원건희 윤석구 이경수 이경태 이민상 이상석 이우성 이은경 이은록 이일길 이효세 정동호 정충로 최기남 최의수 허정자 홍광선 홍인표 황지영 황철수 송마이클 합계:\$4,620	성전헌금	김윤진 김찬구 노혜숙 박완철 박정자 송호창 신경훈 안민수 원건희 이경수 이민상 이상석 이우성 이은록 이일길 이효세 정동호 정충로 최기남 허정자 홍광선 황지영 송마이클 합계 : \$3,000
주일미사헌금 : \$2,303	주보광고: \$480	감사헌금:\$100(최동한)	

◆ 한국학교 공지사항입니다.

- 제17차 한국어 교사 학술대회
 - 주제 : 소통과 융합의 배움중심 한국어 교육
 - 기간 : 8월 12일(금)~13일(토)
 - 장소 : 14299 Firestone Blvd, La Mirada, CA 90638
- 제2회 차세대 세미나
 - 대상 : 한글학교 TA (9학년 이상과 대학생)
 - 기간 : 8월 13일(토) 오전 9시~오후 8시 30분
 - 장소 : 14299 Firestone Blvd, La Mirada, CA 90638
- LA한국교육원 여름 청소년 특별 프로그램
 - 기간 : 2016. 7. 12(화)~ 7. 22(금)
 - 신청일 : 5.23 ~ 프로그램 시작전까지
 - 교육원 홈페이지 www.kecla.org 참조
- K-Con : 한식, 한국어, K-POP등 한국문화체험
 - 기간 : Jul 29~31
 - 장소 : Staples Center/LA Convention Center
 - 무료입장권(1매당 2인) : 성당 사무실 문의
 - 자세한 사항은 www.kconusa.com 참조
 - 문의: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 (213)700-9399

남가주 소식

◆ 일상의 삶속에서 하는 9개월간의 영신수련

- 기간 : 2016년 9월~2017년6월
- 주관 : 예수회 로올라 영성센터
- 회비 : \$70(교재비 별도)
- Loyola Institute of Spirituality
480 S. Batavia. Orange, CA 92868
- 문의 : 전 아네스(213) 507-1144

◆ 성서 사십주간 신약성경 개강

- 일시 : 2016.6.21~2016.12.13(7.26~8.23방학)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오후12시
- 준비물 : 성경, 필기구, 개인컵
- 회비 : \$70(교재비 별도)
- 장소 : 남가주 가톨릭 성서모임센터(CBLM)
6751 Western Ave, Buena Park, CA90621
- 문의 : (714) 521-1345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오신재 메히틸다 713-4926	김옥찬 수산나 7/17(일) 오후1시 성당
	2	장수영 패트릭 781-0787	장수영 패트릭 7/9(토) 오후6시 성당
	3	윤미애 안나 560-7120	윤미애 안나 7/15(금)오후7시30분 코코호도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박동수 베드로 218-7340	김주량 요한 7/23(토) 오후5시
	2	최양숙 안젤라 800-7393	이명렬 라파엘 7/9(토) 오후5시30분
	3	박명순 안나 968-7600	윤선희 로사 7/16(토)오전10시30분 성당
토런스 남 김희연 루시아 (213) 458-3356	1	김준 방지거 625-3312	현석주 아오스딩 7/23(금)오후7시30분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김여순 도미니카 7/19일(화)오전11시30분
	3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이희경 크리스티나 7/16(토)오후6시30분
토런스 북 정병옥율리아 404-1607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황지영 안젤라 7/17(일) Delton Park 오전10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종 다니엘	1/ 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김혜영 아네스 7/9(토) 오후7시 성당
P. V. 송인선 안젤라 (503) 927-0770	1	남해나 베네딕타 384-3289	남해나 베네딕타 7/30일 오전 9시 온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유지아 클라라 7/17(일)오후1시 Ryan Park
	3	신혜정 로사 213-369-0687	신혜정 로사 7/9(토) 오전11시 성당
	4	이귀란 아메스 617-3568	최수지 카타리나 7/12(화)오전10시30분 성당

이번 주일 단체 모임

다음주일 단체모임

사목회의

1시

성체 도둑이 성모님의 종으로

(이 글의 주인공은 현재 제주고리예에 살고 있는 실재 인물입니다. 기사에 내용에 나오는 공동체 책임자의 이름이나 공동체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것은 이 자매가 사탄교회의 추종자들의 살해 대상의 주요 인물로서 아직도 많은 위험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자매는 교황청 신앙교리성의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독자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역주, 남기옥)

나의 어린 시절은 태어나면서부터 살아 남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다. 엄마는 내가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나를 버리고 사라졌기 때문에 나는 엄마를 만난 적이 없었고,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환경에서 자랐다. 내가 태어난 병원에서는 가족이나 연락처 조차도 없는 나를 즉시 고아원에 보냈는데 불행하게도 그곳은 사랑이라는 단어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곳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6년 동안 살다가 드디어 어느 한 가정에 입양되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그 고아원은 어린이 학대로 파문을 일으키면서 폐쇄되었다.

유아기의 어린 아이에게는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 당연하지만 나는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자랐다. 그렇게 살다 보니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폐쇄적이고 사랑을 믿지 못하고 정서가 불안한 아이로 사회성이 결여된 채 자랐다. 나는 18살이 되자 양부모의 집을 나와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방랑한 생활을 시작하였다.

어느 날 우연히 좋으신 하느님 - 그때는 좋으신 하느님인 줄 전혀 몰랐지만... - 께서 내게 요리의 예술세계에 대한 탁월한 감각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요리사들의 세계에서 나는 빠르게 승승장구하였고, 얼마 되지 않아 요리사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의 위치까지 승진하게 되었다. 부모의 얼굴도 모르는 외톨이로 외롭게 자란 나이지만 드디어 나도 세상에 내놓을 만한 것이 있다고 으스스할 수 있었다! 이런 사치스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과중한 업무와 책임을 지어야 할 일들이 많아져 코카인이나 커피, 흡연, 술에 의존하면서 살 수 밖에 없었다.

그 당시 나는 혼자서 다 쓸 수 없을 정도의 - 한 달에 한화 5백만 원 가량의.. - 수입으로 사치와 쾌락을 위해서 돈에 구애 받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다했다. 이탈리아 전역과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최고급 호텔에서 만 머물렀다. 요리사라는 직업은 특히 계절에 많은 영향을 받고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니기 때문에 나는 각 지역마다 남자들을 정해 두고 육체의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살았다. 그들과의 사랑도 마음으로 만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드는 남자가 나타나면 나는 즉시 새로운 남자와 오직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하루 밤을 보냈다. 그때의 나는 남녀관계는 서로 필요에 의한 육체적인 만남이 있을 뿐, 순수한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혀 믿지 않았다. 나에게 돈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필요에 의하여 언제든지 상대방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살았다. 상대방에게 진

실한 마음이나 순수한 사랑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라는 불신으로 상대방에게 절대 마음을 주지 않았으며 감성이나 느낌 등은 의식적으로 무시해지려고 마음을 굳게 닫고 살았다.

그렇게 지내던 중, 정말 내 마음에 드는 한 남자를 알게 되었다. 나는 그 동안 만나 왔던 수많은 남자들처럼 그 남자와도 내가 원하는 하루 밤을 보내기를 원했지만 그 남자는 달랐다. 그는 나를 사랑하지만 자신은 가톨릭 신자라서 혼인성사를 받기 전에는 함께 잘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그 사람을 참 이상한 남자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 조건 없이, 변함없이 오직 나만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그를, 만날수록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구속 받는 것을 싫어 하던 내가 항상 그와 같이 있고 싶고, 헤어지기 싫어서 처음으로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 사람은 처음으로 나에게 하느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말해주었다. 그 전에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비웃었지만 이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있다면 나도 하느님을 믿고 싶었다.

그 동안 수 많은 남자들을 만나왔지만 나에게 첫사랑을 가르쳐 준 그와 결혼을 약속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결혼식 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고아로 자라서 얼굴도 모르는 가족을 그리면서 외롭게 살아 온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미고 나의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다는 미래는 상상만해도 너무나 행복해서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다. 그러나 나의 행복은 너무나 짧았다. 지금도 꿈이기를 바라며 기억조차하기 싫은 불행한 일이 생겼다. 내가 처음으로 목숨을 바쳐 사랑했던 그가 수혈로 인해 몹아온 저주 받은 병으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건강을 되 찾을 수 있는 것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느님께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했다. 그를 살려달라고...

살려만 주면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그러나 그는 그토록 기다리던 나와 결혼식을 사흘 앞두고 죽었다. 나는 청천벽력을 맞은 듯이, 마치 꿈을 꾸고 있는 듯이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났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가 죽었다는 현실을 저주하면서 숨이 멈추어서 차갑게 식어 가는 그의 몸을 붙들고 놓을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엄연한 현실이었다...

내게 처음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준 사람, 목숨보다 소중한 그 사람을 영원히 떠나 보내는 장례식 날 저녁, 나는 미친듯이 고향을 지르면서 하느님을 저주하였다. "만약 당신이 정말 존재하는 신이라면 나는 당신을 찾아 내어 때려 눕히고 말거야! 하지만 있지도 않는 당신이었다면 나는 평생을 바쳐서 신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세상을 향해 외치겠어!!"

시간은 흘러갔지만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났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계속>

스승을 배신하고 도망친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마지막까지 함께한 사람들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던 예수님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시던 예수님은 오후 세 시 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고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애타게 지켜봤던 군중들은 가슴을 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장에서 예수님이 죽어 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백인대장은 무엇이랴 말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르코 15,33-39

예수님은 자신이 믿는 하느님에게마저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두고 줄행랑을 쳤습니다. 사도들의 대표인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께 호언장담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태오 26,31-35;69-75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따랐던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그들은 의연하고 충실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 곁에서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태오27,55-56 /요한19,25-27

예수님의 수난 여정에 마지막까지 함께한 여성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직분이나 능력, 위치 등의 세속적인 위계질서의 사고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와는 전혀 다른 방식인 가치의 서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임종 순간, 무덤에 안치할 때도 함께 했고, 안식일 다음 날 향료를 가지고 무덤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녀들에게는 어떤 인간적인 이해타산이나 계산이 없었고, 순수함과 희생심과 사랑의 마음만이 있었습니다. 큰 책임을 맡은 사도들은 모두 도망쳤지만, 이 여인들은 교회를 충실히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그녀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께서 가신 길을 충실하게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괄호 속을 채워보세요!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와 그 곁에 선 ()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입니다.”(요한 19,26)

여자들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에는 (),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가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에 계실 때에 그분을 따르며 시종들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님과 함께 ()에 올라온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마르 15,40-41)

◆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그 말 한마디

난 입안에 변명을 가득 물고 있나 봐
왜냐하면, 때문에, 그래서.
누가 다그치는 것도 아닌데 입만 열면 우르르 변명부터 쏟아지네.
내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언어들은 모두 어디에 두고
어째서 언제나 변명이 먼저일까.
미안하단 한마디 그렇게 어려웠나.
아, 나는 멀었구나. 아직 한참 멀었구나.

-이영 아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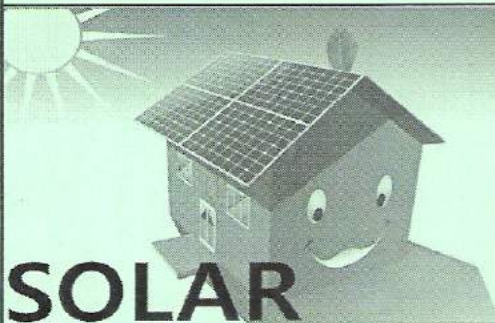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9:30~11:30(오전) 2:00~7:00(오후)
수	CLOSED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활인 통증 전문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2140 W. Olympic Bl. #422 LA, CA 90006
☎(213)480-0911

씨니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원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저희는 유족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늘 3명 이상이 예의를 갖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장례플랜전문: 제니퍼 오 : 213-446-9557
장례보험/장례적금/묘지매매
묘지를 사고 파실 때 문의: 310-908-8823



AmGreen Solar / LED
윤철 아오스딩 310-386-0738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그린힐스 공원묘지 조 마리아

☎ (310)521-4306

27501 S. Western Av. R.P.V., CA90275

융자 / 채융자 / 홈 에퀴티 라인
Tax 보고서 없이가능(30년 고정)
Direct Lender
이인석 비오(213)393-5572

이경희(바오로)

이민법 전문 변호사

능력과 접근방법이 결과를 달리합니다
☎ 213-385-4646(imin)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 - ONE

AUTO CENTER

BODY & PAINT

자동차 종합정비, 디젤트럭 정비

☎(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잭마-

TCP18894-P 주정부 허가

베스트 공항 택시 LA공항전문

24 / 7 미니 밴 항시 대기

TEL)310-516-8282

조셉 홍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가주 장 의 사
California Mortuary

정영목 목사

President Yung M. Jung

Lic. #FDR1124 / CB96588 / californiamortuary@gmail.com

LA OFFICE

(FD2256)

(213)568-3025(24hrs)

2717W.Olympic Bl.

#204

LA, CA 90010

MAIN OFFICE

(FD1648)

(562)622-9393(24hrs)

Fax (562)622-4843

9830 Lakewood Bl

Downey, CA 90240

South Bay Office

(FD2253)

(310)817-4337(24hrs)

16229 Western Ave.

#8

Gardena, CA 90247

파고다 캐더링

각종 일반잔, 캐더링주문 받습니다

김원규 요셉 양희자 클라라

☎ 310-326-5600

2760 Sepulveda Blvd Torrance, CA

오 미카엘(명섭) 지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스테파노 건축

김광일 스테파노

☎(310)803-0777



은퇴/상속 전문

Financial Advisor

유보나 보나

Prudential

푸르덴셜

Life Insurance/Annuity/LTC/Trust

Tel. 310-755-9837

플라자 약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금강 안경 검안과

GOLD OPTOMETRY

L.A.: (213)384-1001 (로데오 빌러리아 몰내)

G.G.: (714)530-1001 (가주 마켓 몰내)

요셉 & 루시아 김 . ME 21차

한스 전자

냉장고, 세탁기, TV, 가전제품

TEL: 323-732-7131

1200 S. Western Av. LA, CA 90006

한 프란치스코

택시 TAXI

☎(310) 350-9540

신 마르티노

16118 Halldale Ave.

Gardena CA90247



Heather Chong (정혜경) Lic#0I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